

미주 모퉁이돌선교회 기도제목(2023.4.17)

1. 북한 선교를 위한 기도

B 선교사가 OO 지역을 이동해서 진행될 차기 사역이 순적하게 하옵소서!

에베소서 3 장 20-21 절 말씀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행하실 수 있는 그분께 바로 그분께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토록 있으리라 아멘” 하신 말씀을 의하며 기도합니다.

1. B 선교사가 지난 시간 현장에서의 힘든 시간을 잘 극복하고, 연약해진 육신이 이전보다 더욱 강건하여져서 현장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건강 상태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2. 다른 지역에서의 차기 사역을 준비하는 B 선교사에게 새 힘을 부어 주셔서, 앞으로 계획하고 진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적하게 이뤄지게 하옵소서.

3. B 선교사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앞서 가시며 악한 세력을 물리쳐 길을 여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역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 종파와 단파로 전해지는 복음의 소리를 통해 북한 복음화가 가속화되기를 기도합니다!

“밤 12 시부터 새벽 2 시까지는 전파 방해가 엄청나요. 그래도 이리저리 주파수를 맞추다 보면 어느 순간 파장이 딱 잡혀요. 뭐가 어디서 하는지 모르니까 일단 돌려 보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은 하나님 이야기가 걸렸어요. 노아 홍수에 대한 거였는데 인간이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하나님이 홍수를 내려 다 쓸어버리고 깨끗한 사람과 동물만 배에 태웠다는 내용이었어요.” 북한에서 라디오로 복음을 듣고 탈북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한

자매의 간증입니다. 중파와 단파로 전해지는 복음의 소리를 통해 북한 복음화가 가속화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영광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령을 주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이 밝아져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들에게 베푸신 그의 영광스러운 상속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의 큰 능력의 역사를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측량할 수 없는 그의 능력의 위대함이 무엇인지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에베소서 1 장 15~19 절(남북한병행성경 북한어) 말씀으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물리적으로 선교하기 어려운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는 방송 사역에 주의 손이 함께 하사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밤 늦은 시간과 이른 새벽,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며 예배하는 북한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 주시고,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는 방송이 준비되어 전파되게 하셔서, 북녘 모든 이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 십자가 빛이 비쳐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주께로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2023 년 4 월 6 일 저녁 7 시, 강화 모퉁이돌선교센터에서 부활절을 기념하는 남북연합예배가 드려졌다. 부활절 새벽에 라디오 방송으로 북한에 송출될 본 예배에는 평소와 다른 특별한 순서가 마련됐습니다. 바로 황해도가 지척에서 마주 보이는 모퉁이돌선교센터에 세워진 대형 십자가 점등식을 진행한 것입니다. 예배 참석자들은 그리스도의 보혈처럼 붉게 빛나는 십자가 밑에 모여 이 빛이 북한 구석구석을 비추기를, 그래서 그 땅이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와 영광이 네 우에 떠올랐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고 짙은 어둠이 만민을 덮을 것이나 여호와께서 네 우에 떠오르시고 그의 영광이 네 우에 나타나리니 모든 나라가 너의 빛으로 나오고 임금들이 너의 새벽 광채로 나오리라” 이사야 60 장 1~3 절(남북한병행성경 북한어) 말씀처럼 빛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어둠에 잠긴 북한에 십자가의 빛을 비추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캄캄한

밤, 밝게 빛나는 이 불빛이 고난 중에 믿음을 지키는 북한 성도에게 위로와 소망으로 가 닿게 하옵소서.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불빛을 통해 북한 사람들의 마음에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십자가 수난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의 소망이 분명하게 새겨지게 하옵소서. 십자가 빛이 비쳐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주께로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 전화로 오가는 이들이 안전하도록, 전화를 통해 북한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기도합니다!

“통화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서 한 1분 정도 했다가 자리를 옮겨가며 전화하는데 최근에는 걸리기만 하면 처벌을 너무 심하게 하니깐 전화 자체가 아예 없어요.”(탈북민 김단금) “최근 한 달간 (감청 위험이) 많이 심해졌어요. 그전에는 ‘생활이 어떻다’는 말도 했는데 지금은 못 물어봐요. 간단하게 ‘돈을 얼마 부쳤느냐?’ 그 정도지 그 이상은 말 못하죠.”(탈북민 손혜영) 북한 당국의 단속 강화로 탈북민과 북한 가족 간에 소통이 더 어려워졌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습니다. 전화로 오가는 이들이 안전하도록, 전화를 통해 북한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기도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그 복음을 너희에게 상기시키기 원하노니 너희는 그 복음을 받았고 또 그 가운데 서 있다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그 말씀을 너희가 굳게 붙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너희는 그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 고린도전서 15 장 1~2 절(남북한병행성경 북한어) 말씀으로 감청과 처벌로 인해 북한으로의 전화 통화가 쉽지 않은 상황을 올려드립니다. 탈북한 가족을 통해 외부로부터 지원과 소식을 듣는 북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무엇보다 짧게라도 수화기에서 복음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 받을 옥토와 같게 하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